

## 제13과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술 취한 에브라임을 향한 화와 회복의 예언

이사야 27:1-29

주전 705년 남유다는 앓수르의 지배를 받다가 705년 사르곤 2세가 죽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앓수르 군을 쫓아내고 독립한다. 유다는 독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기쁨을 맛보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앓수르의 불안한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앓수르의 침공을 막으려 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과 더불어 애굽을 의지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언약파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경하게 이를 막게 되는데 이런 배경 가운데 선포한 예언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사야28장-35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화와 회복의 예언’이다.

이 예언을 화와 회복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남유다와 앓수르를 향해 7번 화선언을 하고 이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복은 화 중에 당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받은 손실을 보상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화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부정함을 제거하시고 그들과의 언약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회복이다.

7개의 화와 회복의 예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술에 취해 있는 에브라임을 향한 화 선언(28:1)
- ② 아리엘을 향한 화 선언(29:1)
- ③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는 자를 향한 화 선언(29:15)
- ④ 패역한 자식을 향한 화 선언(30:1)
- 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향한 화 선언(31:1)
- ⑥ 안일한 여인들을 향한 화 선언(32:9)
- ⑦ 앓수르를 향한 화 선언(33:1)

첫 번째 '화 예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화 선언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다. 이렇게 화와 회복의 예언은 남유다를 향한 6개의 화 선언과 앗수르를 향한 1개의 화선 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첫 번째 화와 복의 예언은 에브라임을 향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한다.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꾀하려다 722년 멸망하였다. 그러므로 705년-701년 사이에 선포된 이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 일종의 회고다. 이사야는 에브라임을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술에 취해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앗수르에 패망한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음을 암시한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첫 번째 이유는 술취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이다.

28:1을 읽고 북이스라엘이 범한 교만과 술취함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 지 생각해 보자.

A.교만(야고보서4:10)

B.술취함(요한계시록17:2)

※여기서 술취함의 죄는 방탕한 삶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외면하고 하나님 밖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말한다.

②.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술취함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화는 쇠잔해지는 꽃과 같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여로보암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주전750년 경 북이스라엘은 중동의 강자로 부상하여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누리던 부와 번영을 재현하는 번성기를 누리다가, 722년 앗수르에 의해 급속히 멸망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앗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8장 2절-5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가 어떤 것인 지 묵상해보자.

③.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던 북이스라엘 중 일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고 사는 존귀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사야는 이렇게 심판을 통해 부정함을 제거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부른다.

28장 6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묵상해보자.

④.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약백성 남유다에게는 영적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 그런데 남유다가 형제국 북이스라엘이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술취한 삶을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있다.

7절의 “그리하여도”는 “술취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도주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탐닉하는 죄를 말한다. 이사야는 깨끗하여야 할 유다가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더러운 나라가 되었다고 탄식한다.

7절-8절을 읽고 유다가 더러운 나라가 된 이유를 묵상해보자.

⑤. 이사야는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 술취해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깨우려하나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조롱하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8:9-10을 읽고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을 조롱하고 비난했는지 살펴보자.

6. 이에 이사야는 이들이 후에 자신이 선포하는 예언을 다른 나랏말로 듣는 때가 올 것이라고 재차 경고한다. 아울러 이사야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본분은 세상을 사랑하며 미래에 있을 재앙을 두려워하며 사는 백성들을 깨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28장 11절-12절)

7.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유다를 지키기 위해 한 돌을 예비하셨다고 선포한다.

28장 14절-16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위협 아래 있는 유다백성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안에 예비해두신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보자.

8.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과 맹약을 맺고 그 안에서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는 유다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다.(21-22절) 그러면서 이사야는 ‘도리깨질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시는 심판이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고, 언약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임을 역설한다.

23절-29절의 ‘도리깨질의 비유’를 읽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시는 심판의 성격에 대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